

유엔여성지위위원회(UN CSW)와 글로벌 여성 의제의 발전

장은하(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 유엔 여성지위위원회(UN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이하 “위원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산하 전문기능위원회 중의 하나로 유엔 회원국의 성평등 달성과 여성 권한 강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임
- 위원회는 1946년 설립 이래 유엔 내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의제들을 주도하였으며, 1975년 “세계여성의 해(1975 International Women's Year)” 선포와 “여성 10년(UN Decade for Women)”을 시작으로 제1차에서 4차까지 유엔 세계여성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아울러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성안과 비준을 지원함
- 위원회는 유엔 내 여성 관련 의제들의 생성과 이행을 위한 정기적이고도 중심적인 축의 역할을 해 왔으며, 따라서 위원회의 발전 과정은 글로벌 주요 여성 의제와 맞물려 있음. 2019년 유엔여성기구(UN Women)에서는 2020년 북경행동강령 25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50여 년간의 위원회의 활동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음(UN Women 2019). 이 보고서에서는 여성 인권과 성평등 달성을 위한 위원회의 업적을 연대기 별로 소개하고,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북경행동강령, 새천년개발목표(MDGs),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지난 50년간 유엔 내 여성 의제의 발전과정을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활동과 연관하여 분석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브리프에서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설립과 발전이 글로벌 여성 의제 발전에 미친 영향을 상기 보고서와 국내외 문헌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위원회가 한국 여성정책 발전에 미친 영향과 최근의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활동을 소개하고자 함¹⁾

1)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의 구성, 기능, 운영과 관련하여는 KWDI Brief 제42호(조혜승, 2018) 참조. 본 브리프는 CSW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기여에 초점을 맞춤.

유엔여성지위위원회((UN CSW)의 설립 및 임무의 변화²⁾

-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1946년 6월 21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UN ECOSOC Resolution 11(II))에 의거하여 발족됨. 동 결의안에 의거하여 여성 권리 증진, 세계 여성 현황에 대한 조사, 성평등과 여성지위향상에 관한 국제기준 형성 등의 임무를 부여받고 관련 활동을 시작함.
- 초기에는 글로벌 차원의 여성 문제에 대해 권고하는 임무를 담당하다가 이후 점차 역할이 확대됨. 위원회 설립 시에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권리 증진에 관한 권고와 보고서를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에 제출하였고, 여성의 권리와 관련되어 긴급한 해결을 요하는 문제에 대해 권고하는 임무를 담당함. 이후 1996년에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결의안 1996/6에 의해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유엔 내 성평등 관점(gender perspective)을 주류화하는 권한을 추가로 부여받음.
- 위원회의 사무국은 유엔사무국 인권국 내 여성 지위 부서에서 담당하다가 1978년에는 여성지위국(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에서, 2010년부터는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담당하고 있음. 사무국의 주요 업무는 다음 <표 1>과 같음.

<표 1> 유엔여성지위위원회(UN CSW) 사무국의 임무

- 글로벌 성평등 현황, 달성한 목표와 실제 이행의 상황과 도전, 난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일반 토의 진행
-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과 유엔총회 제23차 특별총회의 결과에 비추어,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그에 주안점을 두고 토론
- 경험, 교훈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개최
- 이전 회기에서 합의된 결과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진전 사항을 평가
-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을 관통하는 성평등적 접근을 주류화하기 위한 역량강화 조치, 이행촉진 조치 등에 관한 패널 상호토론 개최
- 성평등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이슈 논의
- 개인 진정에 대한 실무그룹의 보고서를 비공개회의에서 논의(consider)
- 회의 결과와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성평등 증진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액션 도출
- 다른 국제기구 및 국제적 절차의 업무에 있어 성평등 관점을 포함시키도록 노력
- 회기 중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이 포함되면 같이 기념함

출처: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웹사이트, <https://www.unwomen.org/en/csw> (2020. 12. 14. 접속)

2)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웹사이트 참조. <https://www.unwomen.org/en/csw/brief-history>. (2021. 12. 15. 접속)

- 위원회는 매년 3월 초 약 10일간 다양한 여성 관련 주제들을 중심으로 뉴욕 유엔본부에서 연례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회의에는 각국 정부 대표와 시민사회 등 여성 분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여성 인권과 관련된 이슈들을 논함.
 - 위원회는 유엔회원국 가운데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에서 선출하는 임기 4년의 45개 위원국(임기 4년)으로 구성되며 기타 회원국도 옵저버로 참석할 수 있음.
- 현재 연례 회의는 우선주제(priority theme), 당해 검토주제(annual review theme) 그리고 새로 등장하는 이슈(emerging issue)의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됨.
 - 설립 초기에는 논의 주제가 세분화 되지는 않았음. 1987년부터 매년 토의를 위한 ‘우선주제(priority theme)’를 선정하였고³⁾, 1996년부터는 매 회의마다 다룰 주제 이슈(thematic issue)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사무총장이 작성·제출하도록 함.⁴⁾
 - 2006년 50차 회의부터는 이전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당해 검토주제(annual review theme)를 정하여 논의하기 시작함.
- 2015년도에 개최된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달성이 곧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에도 기여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위급회담(high-level political forum)의 진행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여, 향후 5년간의 회의 주제를 미리 선정할 것을 요청함. 이에 2020년 7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안으로 향후 5년간 UN CSW에서 다룰 우선 주제와 검토주제가 다음과 같이 선정됨.⁵⁾

<표 1> 조사대상 사업체 표본할당

단위: 개사

UN CSW	주제	내용
제65차 (2021)	우선주제	여성과 의사결정
	검토주제	여성과 지속가능발전
제66차 (2022)	우선주제	여성과 기후변화 / 자연재해
	검토주제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
제67차 (2023)	우선주제	여성과 ICT
	검토주제	농촌 여성
제68차 (2024)	우선주제	성인지적 제도와 자원
	검토주제	여성과 사회보호
제69차 (2025)	우선주제	미정 (북경행동강령 30주년 기념)
	검토주제	

3) UN ECOSOC Resolution 1987/24

4) UN ECOSOC Resolution 1996/6

5) UN ECOSOC Resolution 2020/15. 2025년은 북경행동강령 제30주년이 되는 해로써, 글로벌 차원의 이행점검과 향후 전략 수립이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유엔여성위원회 연례회의 기능이 여성 의제의 이행점검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제도화되고 세분화되었다는 점임. 북경행동강령에서의 주요 의제들의 이행을 “우선주제”와 “검토주제”로 분류하여 순환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새로이 대두되는 기후변화와 디지털 분야 등에서의 성평등 이슈도 적극 포함하여 대응하고 있음.

유엔여성지위위원회(UN CSW)의 발전과 글로벌 여성 의제⁶⁾

-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유엔여성지위위원회(UN CSW)는 그 임무와 활동에 있어서 변화를 겪었으며, 1947년 설립 이래 다음과 같이 시기별 특징을 가지고 발전하였음.

가. 1947년~62년: 성평등에 관한 법적, 규범적 기준의 형성

- 이 시기에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차별 인식에 있어서 국제적 기준을 형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음. 또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성안 시에 모든 인류를 표현하는 단어로서 ‘men’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관철하였으며, 전 세계 여성의 정치적·법률적 지위에 관하여 국가별로 광범위한 연구와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olitical Rights of Women, 1953) 등 일련의 국제규범을 수립함.
- 또한 세계노동기구(ILO)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Equal Remuneration for Men and Women Workers for Work of Equal Value, 1953)의 성안에도 기여함.

나. 1963년~75년: 개발(발전)에서 여성 참여 확대⁷⁾

- 이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 개발(발전) 담론이 대두하는 시기이며, 이에 발맞추어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도 개발도상국 내 여성의 지위에 중점을 두게 됨.
 - 1960년대부터는 여성이 빈곤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고, 이에 동 위원회는 농촌 개발, 농업, 가족 계획에서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함.
 - 또한, 1972년에는 위원회의 창설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International Women's Year)로 지정하였으며, 이후 10년을 기념하기로 함. 유엔 세계여성의 10년의 주제로 ‘평등,’ ‘개발(발전),’ ‘평화’를 선정하였고(UN Decade for Women: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이 3가지 주제는 1975년 멕시코 시티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여성대회의 주제로 채택됨.

6) 이 부분은 UN Women(2019)에서 요약 발췌함.

7) 여기에서 영문인 “development”의 경우 당시에는 “발전”으로 번역하였으므로 이를 괄호로 표기함.

다. 1976년~85년: UN 여성을 위한 10년(UN Decade for Women)

- 이 시기에 위원회는 여성의 이슈가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되게 하는 작업에 집중함.
 - 1975년 「세계여성의 해(International Women's Year)」를 선포함과 동시에, 1975년 제1차 세계여성대회에서 1976년부터 1985년을 「유엔 여성 10년(UN Decade for Women)」으로 지정하고, “평등, 발전, 평화”의 주제를 확산함. 1980년에는 제2차 세계여성대회를 코펜하겐에서, 1985년 제3차 세계여성대회를 나이로비에서 개최함.
 - 이 시기 중요한 성과로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UN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이 1979년에 공식적으로 채택되고 81년에 발효된 것인데, 위원회는 동 협약의 성안과 회원국의 비준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수행함.
- 이러한 대외적인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유엔 내에서의 위원회의 역할은 미미하였는데, 1980년 제2차 세계여성대회의에서는 동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결정하였고, 여성을 위한 10년을 평가하는 회의를 준비할 것을 권고함.

라. 1986년~95년: 글로벌 아젠다로 부상한 여성 이슈

- 이 시기에는 여성의 이슈가 글로벌 아젠다로 본격적으로 부상함. 1970년부터 86년까지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2년에 한 번 개최되었으나, 1987년부터는 매년 개최되면서 전담 부서가 구성되었으며 회원국도 45개국으로 증가함.
- 특히 이 시기에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이외에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유엔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등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문제를 국가가 다루어야 하는 과제로 확인한 시기임. 이에 따라 1993년 유엔총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게 되었고, 여성의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도 창설됨.
- 또한, 개발에 관한 일련의 국제회의가 유엔의 주도로 개최되었는데(리우 환경회의, 세계인권회의, 인구회의, 해비타트, 식량권회의 등) 이러한 회의에서 여성 이슈를 주류화하고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를 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활발히 진행함.
- 1995년 제4차 여성대회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으며, 약 6천명의 정부 대표, 4천 명의 NGO 대표, 4천 명의 언론인 참여하였으며, 북경행동강령을 채택함으로써,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을 글로벌 아젠다로 부상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함.

마. 1996년~2005년: 여성을 위한 발전을 전진시킴

- 이 시기에는 위원회의 업무가 확대되고 정교화되었는데, 특히 1995년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의 채택 이후 북경 의제의 이행을 점검하는 임무를 맡게 됨.
 - 북경행동강령에서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의 개념을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채택함. 이의 실행을 위해 동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 내 다른 기능별 위원회에서도 여성 이슈가 주류화 될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연례 회의에 회원국 고위급 정부대표단이 참여함에 따라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을 매년 회기 중에 공식화하여 각국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게 됨.
- 이 시기 중요한 성과 중 또 다른 하나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대한 선택의정서를 채택한 것임.
 -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및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상 이행제도를 강화하는 선택의정서 도입을 촉구하였고, 1999년 유엔총회의 결의안으로 선택의정서가 채택됨. 선택의정서에는 개인의 진정제도와 권리위반 상황에 대한 조사의 두 절차가 포함되어, 개인의 진정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여타 국제 인권협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과 동등한 지위를 획득하게 됨.⁸⁾
- 또 다른 중요한 성과로는 2000년에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가 채택된 것임. 이어서 2004년도에는 UN CSW에서 분쟁예방, 관리와 해결, 분쟁 후 평화유지에 있어서 여성이 동등한 참여권에 관한 문제를 다루도록 하는 결의가 채택되는 등, 동 위원회는 여성평화안보 이슈도 다루기 시작함.

바. 2006년~15년: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실현의 가속화

- 이 시기에는 유엔 내에서 여성 의제를 다루는 제도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2010년 유엔총회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유엔여성기구(UN Women)의 창설임.
 - 유엔여성기구(UN Women)는 기존 유엔 내 4개의 여성 관련 기구인 유엔 사무국 경제사회국(DESA) 내 여성지위향상과(DAW), 여성훈련연구기구(INSTRAW), 유엔여성발전기금(UNIFEM), 여성 문제에 대한 사무총장 특별자문관실(OSAGI) 등의 역할을 통합한 것임.
 - 이 통합 작업을 통해 유엔여성기구(UN Women)는 여성차별철폐와 관련된 규범의 확산과 이행 지원 및 유엔 내 성주류화의 임무를 맡게 됨.
- 2000년에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제23차 유엔 특별총회에서 북경선언과 행동강령의 5주년 이행을 점검하였고, 2010년 점검 시에는 새천년개발계획(MDGs) 이행과 북경선언, 2015년에는 SDG 등 유엔의 개발 아젠다와 성평등의 이슈를 연계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함.
- 제23차 특별총회에서는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의 완전한 이행을 모든 당사국이 서약하였으며, 2015년 회의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2020년까지 성평등에 있어 측정 가능한 결과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는 완전한 성평등을 달성한다는 선언을 채택함.

사. 2015년~30년: 성평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역량강화 구현

- 2015년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연례 회의에서는 1995년 채택된 북경행동강령과 2015년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함.

8)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 https://www.mofa.go.kr/www/brd/m_3998/view.do?seq=30561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3 (2021. 12. 15. 접속)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하여 SDGs의 이행점검에 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업무방식을 변경하였는데, 특히 SDGs 내 성평등 목표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2016년에는 그와 관련된 다수의 결의를 채택하여 북경행동강령을 이행하는 것이 곧 SDGs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함.
- 2020년 3월 개최된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연례회의에서는 북경행동강령 및 선언 25주년을 기념하고 그간의 이행 정도를 파악하여 당사국이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회의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으로 연기되었고, 2021년 제 65차 연례 회의는 온라인으로 개최됨.
- 2022년 제66차 회의는 2022년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제외한 부대행사(Side Events)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임.⁹⁾ 제 66차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환경, 재난위험 경감 정책과 프로그램에서의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의 권한강화”가 우선 주제(priority theme)로 채택되었고, 61차 회기에서 논의된 여성의 경제역량강화가 검토주제(review theme)으로 채택됨.

유엔여성지위위원회(UN CSW)의 의의

- 올해로써 설립 75주년을 맞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여성 지위 향상과 의제 형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유엔 회원국 내 여성정책과 제도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침.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가. 글로벌 차원

-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 내에서의 여성 의제를 총괄하고 발전시켜 온 가장 핵심적인 기구로써, 설립 초기에는 여성 차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형성하였고, 이후에는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담론을 선도함.
- 1975년 세계여성의 해 선포를 시작으로 1970년 멕시코 시티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여성대회, 1980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2차 세계여성대회, 1985년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3차 세계여성대회,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대회를 주관하였고, 「유엔 여성 10년(UN Decade for Women)」을 선도하고 결과문서를 채택함. 아울러 1979년에 여성 인권 국제협약인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을 채택한 것은 위원회의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임.
- 해마다 열리는 연례 회의에서는 합의결론(Agreed Conclusion)의 이행과, 북경행동강령,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여성관련 목표, 여성평화안보 의제 등의 이행을 촉구하며 지원함.

9) 2021년 12월 15일 현재 상황이며 변동될 수 있음. UN CSW 사이드이벤트 웹사이트. <https://www.unwomen.org/en/csw/csw66-2022/side-events> (2021. 12. 15. 접속)

-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지역 및 국가 사무소를 둔 현장과 맞닿아 있는 운영기구라고 한다면,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소속으로 유엔 내 가장 높은 차원에서 담론을 주도하고 유엔과 의제를 조율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음. 즉, 유엔 내에서 북경행동강령,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 등 다양한 글로벌 의제를 아우르면서 담론을 주도하고, 이행을 점검하며, 유엔 내 다른 의제에서 성주류화를 촉구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길과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메타 기구의 성격으로서 역할한다고 할 수 있음.

나. 국내 차원

- 한국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꾸준히 동참하였으며, 1980년대부터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도 활발히 활동하여 옴.
- 유엔의 여성 의제가 한국에서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2차 세계여성회의 이후임. 한국 정부, 비정부 기구들은 코펜하겐 회의 이후 여성정책 개발 담당기구 설립을 건의하였고, 한국 정부는 1983년 한국여성개발원(現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설립하고, 같은 해에 국무총리산하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설립하였음. 이어서 1984년에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비준하였음.
- 한국은 1986년에 비로소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였고, 1991년 한국의 유엔 가입 이후, 1993년 4월 위원국으로 선출됨.
-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 정부, 여성단체들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1996년에는 김영정 당시 김영정 대한적십자사 부총재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위원으로 피선되는 등, 한국은 1990년대 초반에 보다 적극적으로 유엔 내 여성 의제 플랫폼에서 활동하기 시작함.
- 한국은 1994년-2006년, 2007년-2010년, 2010년-2014년, 2015년-2018년 위원국으로 역임하였고, 2019-22년 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음. 한국은 지속적으로 이사국을 역임함으로써 여성지위위원회의 각종 논의에 참여함과 동시에 표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 현재 한국 정부는 매년 외교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담당관과 연구원, 국회의원 등을 한국대표단으로 구성하여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파견함.
 - 한국대표단은 고위급 전체회의 연설과 고위급원탁회의를 통해 당해 년도의 의제와 관련한 한국의 여성 정책을 소개하며, 여성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세계 각국과 여성 분야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 특히 최근에는 한국이 개도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성인지적 ODA를 사례로 공유하는 등,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상을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 발돋움 하고 있음. 일례로 2020년도 3월에 한국 정부는 2020년 제64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연례 회의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의 공동주관으로 디지털 성폭력을 주제로 사이드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됨. 동 포럼에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참가 의향을 표시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는 한국이 향후 글로벌 선도 의제를 주도해 나갈 만큼의 역량을 보유했다는 것을 의미함.

참고문헌

UN Women (2019). A Short History of 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https://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19/02/a-short-history-of-the-commission-on-the-status-of-women> (접속일 2020. 09. 2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제62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관기. KWDI Brief. 제 42호(작성자: 조혜승)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 UN ECOSOC Resolution 1987/24
- UN ECOSOC Resolution 1996/6
- UN ECOSOC Resolution 2020/15

유엔여성지위위원회(UN CSW) 웹사이트, <https://www.unwomen.org/en/csw>

대한민국 외교부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www/brd/m_3998/view.do?seq=30561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3